

## 지역 고용시장 훈풍?... 청년층은 '취업한파'

광주·전남 고용률 6개월째 60% ↑  
29세 미만 40% 밀돌아 '악화일로'  
'쉬는 청년' 많아 '통계 착시현상'  
"청년 체감 실질 고용정책 시급"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조금씩 심정입니다. 취업문은 좁은데 사실 다들 가장 높은 곳만 바라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아마 취업준비생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광주·전남지역 고용률이 6개월 연속 60%를 웃도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대학 졸업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한파'를 겪고 있다. 특히 29세 미만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낮아 실질적인 청년 고용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 고용률은 60.9%로 지난 7월 이후 6개월째 60%대를 상회하며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남지역도 66.8%로 안정적인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29세 미만 청년층 고용률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군구·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5세~29세의 고용률은 광주 동구 39.3%, 서구 43.4%, 남구 33.5%, 북구 37.1%, 광산구 39.8% 등으로 평균 40%를 밀돌고 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허수를 제외하면 실제 청년

취업률은 더욱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전체 취업자 수는 27만7000명 증가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29만1000명 증가)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4000명 감소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4만4000명이나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취업자 2869만8000명 중 △15~29세 384만8000명 △30~39세 541만6000명 △40~49세 625만4000명 △50~59세 670만명 △60세 이상 648만명 등이었다.

지역 청년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취업은 말 그대로 '바늘 구멍'이다.

전남대 화학과에 재학 중인 김가희(가명·24)씨는 졸업을 앞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번 겨울이 지나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취업준비생'으로 불려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자격증 취득과 공모전 준비, 어학점수에 편입 준비까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막상 취업을 하고 싶은 기업에 원서를 내기에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김씨는 "공학계열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분야 중 하나가 연구직인데 최근에는 석사학위가 거의 필수적인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하지만 석사를 땀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될 거란 보장도 없어 대학원 진학과 취업 준비 중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 폴리텍에서 운영하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지역에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관련 중견기업도 거의 없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바로 취업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기 두려워 대학원 진학이 도피처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까지 2~3년은 기본으로 걸리는 이유다"면서 "졸업 후 바로 선호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경우는 전 학년에 걸쳐서 한 두명 정도로 드물고, 이는 특이 케이스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몰래 산타'의 깜짝 선물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이 14일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노인, 다문화,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산타가 희망을 배달하는 마을 몰래산타' 행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깜짝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몰래산타는 이날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지역 돌봄이웃 10세대에 장난감, 한우, 쌀, 케이크 등의 선물을 전달했다.

나건호 기자

## 시·도지사 17일 회동... '군공항 합의안' 나올까

### 7개월만에 공식석상 만남

오는 17일 공식석상에서 대면하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시·도에 따르면 강 시장과 김 지사가 17일 오후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번 만남은 지난 5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회동 이후 두 번째 공식석상이다. 당시 두 광역단체장은 공동발표문 형식을 통해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규모 확정, 군공항 유치대상 지역 대상 설명회·공청회 추진, 소음 문제·이주 대책·

지역 발전 대책 적극 설명 등 3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시·도 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민간공항 문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서로의 시각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는 못했다.

광주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데, 전남도가 군공항을 받아들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선결한다면 민간공항의 이전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실상 파기된 2018년 8월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공항 이전에 대한 3자 협약과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겼다.

전남도는 민간공항 선이전 약속과 함께

광주시가 직접 나서 무안군과 소통하라는 입장이다.

'데드라인'을 KTX 무안공항역사가 개통하는 오는 2025년으로 보고 있는 전남도는 '합의→설계→타결' 순으로 이어지는 이전 문제를 논의할 시간도 사실상 내년 한 해 뿐이라는 점에서 광주시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무안군에 대한 모든 설득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의 핵심 당사자인 광주시가 무안군에 구체적인 비전(지원사업)을 제시함과 동시에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보내겠다는 선언을 하루 빨리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노병하·최황지 기자

**광주사람들 (580/1000)**

**신희흥**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 대표

관련기사 16편

#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 탐 환경건설

(주) 탐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